http://dx.doi.org/10.16874/jslckc.2020..56.004

韓·中·日 고전문학 속의 여성과 유언(遺言)*

이경미**

目 录

1. 들어가며
2. 여성의 개인적·정념적 차원의 유언
3. 여성의 가정적·윤리적 차원의 유언
4. 여성의 사회적·이념적 차원의 유언
5. 나가며

1. 들어가며

"동생! 나는 여기에 친인(親人)이 없다네. 내 몸은 깨끗하니 어쨌든 그들에게 나를 돌려보내달라고 하시게. 보옥, 보옥, 너는 정말 … " 1)

중국 고전문학의 걸작『紅樓夢』에서 그토록 사랑하던 가보옥(賈寶玉)이 설보채(薛寶釵)와 결혼식을 올리던 날, 임대옥(林黛玉)은 가보옥(賈寶玉)으로부터 받았던 손수건과 자신이 쓴 시집(詩集)을 불태우며 쓸쓸히 죽음을 맞는

* 이 논문은 2020년도 동서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동서대학교 중국어학과 부교수
1) " 妹妹!我這裏並沒親人。我的身子是乾淨的, 你好歹叫他們送我回去! 寶玉、寶玉, 你好 …." (조설근, 최용철역,『홍루몽』, 나남, 2009)

www.kci.go.kr

다. 화려한 대관원은 결코 자신의 집이 아니었고, 자신의 시신과 영혼만이라도 자신이 출생한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바랬던 임대옥은 외롭고 '깨끗한' 영혼의 소유자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보옥의 이름을 애달프게 재차 불러 보지만, 차마 말을 다 마치지 못하고 죽고 만다. 이 짧지만 진실된 유언은 임대옥(林黛玉) 그 자체였다. 한편 서양문학과 문화의 출발점인 그리스 신화 속 페드라의 유언은 거짓과 분노로 얼룩져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 온다. 페드라는 전처의 아들 히폴리토스를 홀로 연모하다가, 자신의 마음을 매몰차게 거절당하자 절망과 복수심으로 남편 테세우스 앞으로 자신을 능욕하려 했다는 거짓 유서[2]를 보내고 자살한다. 이에 극도로 분노한 테세우스의 저주로 아들 히폴리토스는 결국 죽고 만다. 페드라의 이글거리는 탐욕과 불타는 복수심은 거짓유서로 폭발되고, 그리스 신화 속 최고의 비극을 만들고 만다. 이처럼 여성의 유언은 유언을 남기는 여성 그 자체이며, 그 여성의 마지막 자아실현의 모습이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양문학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가부장적 봉건사회에서 본연의 감정을 억누르며 순종적, 희생적 여성으로 살아오다가, 죽기 직전 유언으로까지 봉건윤리를 재차 강조하는 여성들이 있었다. 반대로 그동안의 '현모양처'의 모습을 훌훌 벗어 던지고, 억눌려왔던 감정들을 유언으로 폭발시키는 여성들도 있었다. 생전에는 봉건적 신분사회에서 질투, 원망의 감정들을 억누르고 있다가, 죽는 순간 감정이 폭발되어 "모진 원귀가 되어 그대의 처첩들을 하루 종일 편치 못하게 할 것입니다."라는 유언처럼 모두를 파멸로 이끈 당전기『霍小玉傳』의 소옥이 있었고, 한편 유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열(烈)'을 강조함으로 봉건윤리를 옹호했던 조선후기『검녀』의 아가씨가 있었다. 또한 현세의 신분적 한계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랑의 맹세와 더불어 그 사랑이 내세에까지 지속되기를 기원한 조선후기『운영전』의 운영과 일본 에도시대 작품『소네쟈키신주(曾根岐心中)』의

2) "이 페드라는 대왕의 아들로 인하여 오늘 이렇듯 잠옷을 갈가리 찢기는 능욕을 당하고 세상을 하직합니다." (이윤기,『그리스 로마 신화』,웅진지식하우스, 2007)

www.kci.go.kr

오하쓰의 유언도 있었다.

이처럼 '유언'이란 가장 진실 되고 장엄한 여성의 모습으로, 인간존재의 마지막 한 점, 즉 오메가 포인트(omega point)이자 새로운 시작을 향한 알파 포인트(alpha point)였다. 특히 봉건제도의 억압 하에 평생을 굴곡지게 살아온 여인들의 마지막 일성(一聲)은 단지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사회, 나아가 자신이 힘겹게 짊어져 왔던 사회체제와 이념에 대한 마지막 도전장이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중일 고전문학 속에서 '여성의 유언'이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작품들을 텍스트로 삼아, 유형별로 분석해 봄으로 그 속에 반영된 당시의 여성관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의 경우에는『운영전』,『열녀홍씨전』,『검녀』,『심생전』을, 중국의 경우에는『霍小玉傳』,『竇娥冤』,『趙氏孤儿』,『三言』,『金瓶梅』등을, 일본의 경우에는『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이세모노가타리(伊勢物語)』,『소네쟈키신주(會根岐心中)』등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검토함으로써 중국을 비롯한 한국, 일본 고전문학 속 여성의 유언에 관하여 심도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2. 여성의 개인적·정념적 차원의 유언

1) 사랑의 절망과 단절

죽음은 인간이 안고 있는 비극적 운명의 가장 큰 결정적 표현이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직전 여성의 유언은 절망적인 사랑을 극대화하는 극적인 장치가 되기도 하였다.

당전기(唐傳奇) 장방(蔣防)의『霍小玉傳』의 기녀 소옥은 선비 이익과 장래를 약속하지만, 이익은 곧 약속을 저버리고 어머니가 마음에 둔 권문세가의 딸 노씨와 정혼한다. 그리고 이익은 소옥이 자신을 단념하도록 연락을 끊었으

www.kci.go.kr

나, 오히려 소옥은 그를 잊지 못하고 기다리다가 병이 든다. 얼마 후 이익은 어떤 남자의 주선에 못 이겨 할 수 없이 병상에 누워 있는 소옥의 거처를 방문한다. 소옥은 자신의 진심을 배신한 무정한 이생에게 술잔을 내동댕이치고는 아래와 같이 통곡의 유언을 남기고 숨을 거두고 만다.

> "저는 여자로 태어나서 이처럼 운명이 박하고, 낭군은 남자로 태어나서 이처럼 배신하니, 나는 청춘의 몸으로 원한을 머금고 이 세상을 떠나겠어요. … 이군(李君)이여, 이군이여, 이제 영원히 이별하게 되었소이다. 저는 죽은 후에 반드시 원귀가 되어 당신의 처첩들을 한시도 편안하지 두지 않겠어요."[3)]

소옥은 그동안 가부장적 신분사회 속 '박한 운명의 여성'으로 살아왔던 설움과 참아왔던 분노를 '술잔을 내동댕이치는' 행동과 무시무시한 유언으로 폭발시키고 만다. 이후 소옥의 원혼은 자신의 유언대로 이익으로 하여금 정신착란을 일으키게 하여, 처첩들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질투하며, 나아가 감금하고, 매질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함으로, 결국 '한시도 편하게 두지 않는' 처절한 복수를 완성한다.

명의 풍몽룡의『警世通言·杜十娘怒沉百寶箱』 속 장안의 명기(名妓) 두십낭도 기생어미에게 쫓겨나 돈 한 푼 없는 이갑(李甲)이지만 그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그리고 기적(妓籍)을 벗고 같이 고향으로 내려가서 이갑과 결혼하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고향으로 내려가던 중 두십낭을 보고 한 눈에 반한 손부(孫富)는 이갑을 감언이설로 꼬드겨 두십낭을 1000냥으로 취하려 한다. 마침 이갑도 화류계 출신의 며느리를 집안에서 반대할 것을 걱정하던 차에 손부의 제안을 고민 끝에 받아들인다. 그러나 뜻밖에도 두십낭은 냉소를 지으며 동의한다. 그리고 손부에게 가는 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엄청난 보물상자를 열어 보이며 공개적인 유언을 남긴다.

---

3) "我爲女子, 薄命如斯！君是丈夫負心若此！韶顔稚齒, 飮恨而終。… 李君李君, 今当永訣！我死之后, 必爲厲鬼, 使君妻妾, 終日不安！"(김종군(편역),『중국전기소설선』, 박이정, 2005)

www.kci.go.kr

> "제가 박복하여, 창기 생활로 극히 고달팠는데, 이제 막 그 생활에서 벗어났는데 또 버림 받는군요. 지금 여러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 모두 사실을 증명해줄 거예요. 첩이 서방님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서방님께서 저를 배신한 것이에요." 4)

창기로서의 아픔과 믿었던 사랑이 배신으로 돌아 온 절망감을 단숨에 토로하고는 보물상자와 함께 물 속으로 몸을 던지고 만다. 그리고 이갑은 죄책감에 괴로운 나날을 보내다가 결국 죽게 된다. 두십낭의 이러한 공개적으로 질책어린 유언은 이갑의 배신에만 향해 있는 것은 아니었다. 당시 남성중심의 가부장사회, 신분사회에 대한 절망의 표현이기도 하였다. 작가 풍몽룡의 두십랑의 공개적인 유언과 죽음의 행위를 통해 이갑을 비롯한 가부장사회의 죄과를 만인에게 공개하고, 이로써 그녀의 아픔이 사회적으로 동정 받고, 이갑을 비롯한 봉건적 가부장사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하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조선후기 李鈺의『沈生傳』도 중인의 딸과 양반가 도련님 심생(沈生)과의 이룰 수 없는 사랑의 이야기다. 심생이 우연히 만난 처녀를 사모하여 밤마다 그녀의 집 담을 넘어간다. 처녀는 처음에는 그를 멀리하고, 만나주지 않으나 결국 심생의 진심을 받아 준다. 그러나 이를 알게 된 심생의 부모에 의해 글공부라는 명분으로 둘은 강제로 이별하게 된다. 후에 처녀는 깊은 마음의 병을 얻게 되고, 결국 유서를 남기고 죽는다.

> "이러한 여자의 슬픔을 어찌 족히 군자(君子)에게 말씀드리오리까. … 끝없는 이 원한은 어느 날이라 다하리오. 오호(嗚呼)라! 창 사이의 밀회(密會)는 이제 그만입니다." 5)

그들의 사랑이 봉건사회의 신분의 벽을 넘지 못하고, 결국 맥없이 좌절당하자 처녀는 삶의 의욕조차 사라지고 만다. 봉건적 신분사회 속 '여자로서의

4) "命之不辰, 風塵困瘁, 甫得脫離, 又遭棄捐。今衆人各有耳目, 共作證明, 妾不負郎君, 郎君自負妾耳！" (馮夢龍, 『警世通言』第32卷, 三秦出版社, 1993)
5) "則猶是兒女之悲, 何足爲君子道也. … 悠悠此恨何日可已? 嗚呼! 窗間之會, 從此斷矣。" (박희병 편역, 『심생전』, 돌배게, 2007)

www.kci.go.kr

슬픔' 과 '끝없는 원한'은 '이제 그만' 이라는 강한 어조의 유서로 단절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일본의 헤이안시대 작자미상의 『이세모노가타리(伊勢物語)』에도 슬픈 사랑의 이야기가 나온다. 출사를 결심하고 상경한 남편이 삼년동안 소식이 없자, 여인은 자신에게 줄곧 청혼하던 다른 남자와 결혼하기로 한다. 그러나 재혼 전날 밤, 무심했던 남편이 다시 돌아온다. 전남편은 '앞으로 그 남자를 길이 사랑하라'는 무정한 말을 하고 떠나버리지만, 여자는 아직도 자신이 남편을 사랑하고 있음을 깨닫고 따라 나선다.

> "사랑했는데 내 곁을 떠난 사람 잡지 못해서 이 몸은 여기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6)

그러나 결국 기진맥진하여 쓰러지고, 다친 손가락에서 흘러나오는 피로 바위위에 위의 글을 남기고 숨을 거두고 만다.

위의 여성들은 가부장제도 하의 여성으로서 받은 불평등과 억압을 참아오다가, 죽음 앞에 이르러서야 진솔한 유언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언을 통해 사랑의 절망과 고통 그리고 단절의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 생을 마감하는 순간의 유언을 통하여 남성중심의 가부장제도, 신분사회에서 여성으로서 느꼈던 아픔과 고통을 반성과 성찰로 수렴시키기도 하였지만, 때로는 외부로 강력하게 폭발시켜 무시무시한 결말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2) 사랑의 맹세와 지속

죽음이 삶의 끝이 아닌 초월적 삶의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여, 삶의 마지막, 죽음에 들어가는 순간의 유언을 통해 변치 않는 사랑

6) "あひ思はで 離れぬる人を とどめかね わが身は今ぞ 消えはてぬめる." (민병훈 옮김, 『이세모노가타리』,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4)

www.kci.go.kr

의 맹세와 더불어 그 사랑이 이후에도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던 여성들이 있었다.

중국 4대 전설 중 하나이며 '동양의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불리는『梁山伯與祝英臺』는 중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슴 아픈 사랑의 이야기다. 글공부를 하고 싶었던 세도가의 딸 축영대(祝英臺)는 부모님을 설득하여 남장(男裝)을 하고 서원(書院)에 간다. 그리고 동문수학하던 가난한 서생 양산백(梁山伯)과 서로 사랑하게 된다. 3년 후, 양산백은 축영대의 집에 찾아 가서 결혼 승낙을 청하였으나 축영대는 이미 다른 사람과 정혼을 한 후였다. 이에 양산백은 축영대를 그리워하다가 마음의 병으로 죽고 만다. 시집가는 날, 축영대는 양산백의 무덤 앞에 들러 변함없는 자신의 마음을 담아 통곡의 유언을 남긴다.

> "당신은 노비되고, 몸도 벌써 죽었는데 저는 이제야 그리워 당신 무덤가에 왔소. 당신 넋이 없다면 저를 물리시고, 넋이라도 있다면 무덤 열어주소." 7)

이어 무덤이 열리자 축영대는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무덤 안으로 뛰어 들어가고, 곧 이어 무덤 속에서는 두 마리의 나비가 날아 올라간다. 아름다운 두 마리의 나비의 출현으로 그들의 사랑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내세에도 아름답게 지속됨을 암시하고 있다.

조선후기 작자미상의『운영전』에서는 안평대군의 궁녀 운영이 현세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김진사와의 사랑으로 괴로워한다. 대군의 총애를 한 몸에 받던 궁녀의 신분을 뛰어넘어 선비 김진사와의 사랑을 추구하지만 신분적 제약은 그들의 사랑을 가로막고, 운영은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된다. 더구나 자신을 도와 준 궁녀들마저 자신으로 인해 죽음에 처하게 되자 운영은 현세에서 이룰 수 없는 사랑에 절망하다가, '세상 일에 뜻이 없어', '4일 동안 아무 것도 먹지 않고' 결국 죽음을 맞이한다.8) 그러나 운영의 유언을 통해 결코 그들의

7) "君旣爲奴身已死, 妾今相憶到墳傍, 君若無靈敎妾退, 有靈須遣塚開張."(釋子山 夾注,『夾注名賢十招詩』, 上海古籍出版社, 2005)

8) 도미영,『운영전에 나타난 죽음의 양상과 의미연구』,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www.kci.go.kr

‘연분’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 생’에서도 지속되고자 하는 ‘지극정성’의 소망을 엿볼 수 있다.

> “첩의 의복이며 은보화는 모두 팔아 부처님께 공양하고 지극 정성으로 소원을 빌어서 삼생의 연분을 다음 생에서 다시 이을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9]

이처럼 죽음을 사랑의 단절로 보지 않고, 내세에서도 변함없이 그 사랑을 이어가고자 하는 현상은 일본의 17, 18세기를 휩쓸었던 정사(情死) 사건, ‘신주(心中)(사랑하는 연인들의 동반자살)’에서 정점을 이루었다. 이들은 ‘신주’를 통해 현세에서 이룰 수 없는 사랑이 내세에서는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10] 이러한 현상은 문학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신주’를 주제로 하는 작품들이 인기를 얻고 대량으로 출현하게 된다. 대표작품으로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지카마스 몬자에몬(近松門左衛門)의『소네쟈키신주(曾根岐心中)』이다.[11] 유녀(遊女) 오하쓰(お初)를 깊이 사랑하는 도쿠베(徳兵衛)는 자신이 일하는 간장가게주인이 조카딸과 자신을 결혼시키려고 하자 괴로워한다. 게다가 친구의 배신으로 억울한 누명까지 쓰게 되자 애인 오하쓰와 함께 새벽녘에 소네자키 숲에 가서 동반자살을 시도하게 된다. 당시 일본에서 크게 유행하던 불교적 죽음관에 기초하여 현세에서 같은 시간, 장소에서 죽으면 내세에는 같은 세상에 태어남을 굳게 믿고, 다시는 헤어지지 않도록 서로의 몸을 끈으로 묶으며 생의 마지막 말을 남긴다.

>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 없을 때는 이 세상에서만의 약속인가요? 저 세상에서 맺어진 경우도 있으므로 하다하다 안 되면 죽어버리면 그뿐이에

논문, 2011, 29쪽 참조

9) 박희병 편역, 『운영전』, 돌배게, 2007.

10) 박미림, 『소네자키 신쥬에 나타난 근세 일본인의 사생관』,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59쪽 참조

11) 김난주, 「정사, 사랑과 죽음의 환상」,『에로티시즘으로 읽는 일본문화』, 제이엔씨, 2013, 261쪽 참조

www.kci.go.kr

요. … 사랑을 위해 죽었다는 평판은 버리지 않겠다는 각오로 면도칼을 준비하였는데 소원대로 함께 죽을 수 있는 이 기쁨이여!"[12]

현세의 사랑이 내세에서도 변함없이 지속되길 바랐던 오하쓰의 유언은 그녀로 하여금 죽음의 두려움조차 사라지고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였다. 이처럼 위의 여성들 축영대, 운영, 오하쓰는 모두 유언을 통해 자신들의 사랑이 죽음에 의해 단절되지 않으리라는 강한 확신과 더불어 한편 내세에서도 그 사랑이 변함없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열망을 드러내고 있었다.

3. 여성의 가정적·윤리적 차원의 유언

1) 효(孝)의 완성

유교와 불교를 윤리, 도덕의 근간으로 삼았던 고대 한중일 사회에서는 "효는 모든 덕행의 처음"이자 "불효는 모든 죄악 중 으뜸"으로 여겨졌고, 인류사회의 건강한 발전과 존속을 위해 필요한 예법윤리로 강조되며 심지어 강제되기까지 하였다.[13] 이러한 사상은 문학 작품 속에도 반영되어 여성들은 삶의 마지막 순간마저 유언을 통해 '효'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기도 하였다.

원나라 곽거경(郭居敬)의 『全相二十四孝詩選』은 당시 전해 내려오던 효자와 효부들의 이야기를 모아 정리한 책이다. 제22편에는 이가 하나도 없어 음식을 먹을 수 없었던 시어머니를 자신의 젖으로 봉양한 효부(孝婦) 당부인

12) "逢ふに逢はれぬその時は、この世ばかりの約束か。さうした例のないではなし。… 浮名は捨てじと心がけ、剃刀用意いたせしが。望みのとおり、一所で死ぬるこの嬉しさ。" (森修·鳥越文藏 外『近松門左衛門集1四十三』, 小學館、1979)

13) 김지수, 「심청전의 주제의식과 근원설화에 대한 관조」, 『종교문화학보』 10, 2013, 42쪽

www.kci.go.kr

(唐夫人)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당부인의 지극한 효심으로 시어머니 공손부인(公孫夫人)은 '병이 없이 건강하게 지내며', 자신의 임종직전에 며느리의 효심을 칭송하고, 자손들이 당부인의 효심을 본받기를 당부하는 유언을 남긴다.

> "내 평생 며느리의 은혜를 입었으니, 보답할 것이 없구나. 자손대대로 우리 집 며느리들은 모두 저 며느리가 나를 받들듯이 그녀를 공경해야 한다."14)

이에 자손들은 공손부인의 유언을 받들어 대대로 당부인의 효심을 기리고 칭송한다.

한편 조선후기 작자미상의 판소리 소설『심청전』의 심청도 한국 효녀의 대명사이다. 심청은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어머니를 여의고, 어린 나이에도 지극한 효성으로 아버지를 봉양한다. 그리고 눈을 뜨고 싶은 마음에 심봉사가 스님에게 덥석 약속한 공양미 삼백석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신을 인당수의 제물로 판다. 인당수에 몸을 던지기 직전까지도 조금의 원망도 없이, 오직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 달라는 간절한 바람의 유언을 남긴다.

> "심청이 죽는 일은 추호라도 섧지 아니하여도, 병든 아버지 깊은 한을 생전에 풀려하고 이 죽음을 당하오니 명천은 감동하사 어두운 아비 눈을 밝게 띄워 주옵소서."15)

그리고 심청의 간절한 유언은 하늘을 감동시켜, 아버지 심봉사 뿐만 아니라, 잔치에 참여한 모든 소경들이 다함께 효심의 복덕을 받아, 동시에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을 만든다. 심청은 자신의 희생으로 실천한 지극한 효심으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할 뿐 아니라, 타인들까지 구제한 것이었다.

한편 맹자(孟子)는 "불효에 세 가지가 있는데, 후사가 없는 것이 크다."16)

---

14) "无以報新婦恩, 愿子孫婦如新婦孝敬足矣。" (『全相二十四孝詩選』)
15) 정하영, 『심청전』, 고대민족문화연구소, 2005.
16) 孟子曰 : 不孝有三, 無後爲大。

www.kci.go.kr

라고 명시하여 여성이 대를 잇지 못하는 것을 큰 불효로 보았다. 이러한 사상은 문학작품에도 반영이 되어 여성이 집안의 후사를 잇는 것을 효의 실천으로 보고, 유언으로서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하였다. 청초 포송령의 『聊齋志異 · 段氏』 편의 부호 단씨의 아내 연씨는 질투가 매우 심하였다. 아들이 없어도 첩을 들이지 못한 단씨는 집안의 여종과 사통(私通)한다. 이에 화가 난 연씨는 여종을 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다른 집으로 팔아 버린다. 집안의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조카들이 재산을 넘보자, 할 수 없이 첩을 들여 자식을 보나 자식들은 하나같이 요절한다. 결국 남편이 죽고 난 후 집안의 재산을 통째로 빼앗기기 일보직전 이전에 쫓아냈던 여종의 아들이 찾아 와서 아들 역할을 함으로써 위기를 면하게 된다. 그 후로 연씨는 자신의 질투심을 철저히 반성하며, 임종 전 집안사람들을 모아놓고 아래의 유언을 남긴다,

> "30이 되어서도 자식을 없으면 재물을 팔아서라도 첩을 들여서 후사를 잇도록 하게. 자식이 없는 건 너무도 힘들다네."17)

효를 실천하기 위하여 재물을 팔아 첩을 들여서라도 후사를 잇도록 권면하고 있는 유언의 뒷면에는 자식이 없었던 고대 여성들의 '너무도 힘든' 삶과 크나큰 아픔을 우회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후사를 잇는 것 외에도 며느리로서 가문의 안위를 걱정하며, 미래를 대비하도록 권면하는 유언을 남기기도 하였다. 아주 특이한 경우로 꿈을 통해 자신의 유언을 전달하는 여성이 있었다. 중국 장편소설의 걸작 청의 조설근의 『红楼梦』 13회에서 경릉 12차 중 한 명으로 너무나도 아름다웠지만 시아버지와의 불륜으로 불행했던 여인 진가경(秦可卿)은 왕희봉(王熙鳳)의 꿈에 자신의 유언을 전하며 죽는다. 지금의 가부(賈府)의 부귀영화는 얼마가지 않을 것이므로, 미리 대비해야 집안의 몰락을 막을 수 있을 것임을 당부한다.

---

17) "汝等志之 : 如三十不育, 便当典質釵珥, 爲夫納妾。无子之情狀, 實難堪也!" (김혜경(역), 『요재지이』, 민음사, 2002)

www.kci.go.kr

> “지금 우리 집안은 이미 근 백년이나 혁혁한 위세를 떨치고 있는데, 어느 날 혹 즐거움이 극에 달해 슬픔이 생기게 되어, 만약 나무가 쓰러지면 원숭이들이 흩어진다는 속담처럼 된다면 一世의 선비가문이라는 말이 헛되지 않겠어요. … 지금 모든 일이 다 잘 되어가고 단지 두 가지만 그렇지 않으니, 만약 이 일을 이와 같이 처리한다면 훗날 영화를 길이 보존할 수 있을 거예요.” 18)

비록 꿈을 통한 유언이었었지만, 집안을 걱정하는 진심어린 마지막 당부는 무능한 집안의 남자들을 대신해서 왕희봉으로 하여금 과감하게 연좌제 실시, 금전장부 기록 등으로 집안의 기강을 바로잡고 실질적으로 집안의 살림을 이끌어 나가게 하는 동력이 된다. 19)

한편 유교의 “부모의 원수는 한 하늘 아래 살지 않고, 형제의 원수는 한 나라에 살지 않으며, 친족의 원수는 한 동네에 살지 않는다. (父母之仇, 不同戴天; 兄弟之仇, 不同國; 九族之仇, 不同鄉黨.)”20) 라는 덕목에 근거하여 부모가 타살된 경우, 자식이 부모의 원수를 갚는 일은 당연하고 권장되는 일이었다.

원잡극 기군상(紀君祥)의『赵氏孤儿』는 중국을 대표하는 복수극으로 그 중심에는 고아 조삭의 어머니 장희(壯姬)공주의 희생과 유언이 있었다. 시아버지 조순과 남편 조삭, 그리고 집안가솔 300여명이 도안고에 의해 하루아침에 몰살되자, 장희공주는 갓 낳은 조씨집안의 마지막 핏줄을 의사 정영(程嬰)에게 부탁하며, 도안고에 대한 복수를 유언으로 남긴다.

> “아이가 나중에 성인이 되면, 조씨집안의 복수를 하게 하세요. … 조씨집안의 가련한 300명의 복수가 이 아이에게 달려 있소.” 21)

---

18) “如今我們家赫赫揚揚, 已將百載, 一日 或樂極悲生, 若應了 樹倒 散 的俗語, 豈不虛稱了一世的詩書舊族了!.… 卽如今日諸事都妥, 只有兩件未妥, 若把此事如此一行, 則後日可保永全了。” (조설근, 최용철역『홍루몽』, 나남, 2009)

19) 한혜경,「왕희봉의 성격특성과 문화적 의의」,『중어중문학』20, 1997, 366쪽 참조

20) 출전은『春秋公洋傳』莊公四年의 疏.

21) “久后成人長大, 与他趙氏報仇。… 你則可怜見俺趙家三百口, 都在這孩儿身上哩！” (紀君祥 지음, 정유선 옮김,『趙氏孤兒』,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1)

www.kci.go.kr

집안의 복수를 당부하는 간절한 유언을 남긴 뒤 공주는 스스로 목을 맨다. 그녀의 눈물어린 희생과 간곡한 유언은 정영으로 하여금 자신의 아이까지 희생하게 하고 결국 고아를 양자로 보내는 등의 오랜 시간의 준비를 통해서 결국 유언대로 복수에 성공한다.

2) 열(烈)의 구현

고대 한중일 삼국은 '굶어 죽는 것은 지극히 작은 일이나 정절을 잃는 것은 큰 일'이라는 가부장적 논리로 여성들을 압박하였다. 즉 정절은 여성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였다. 이런 이유로 여성의 '음행'(淫行)과 '훼절'(毁節)은 여성의 명예를 훼손시킬 뿐 아니라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어 이에 상응하는 엄벌, 때로는 죽음으로 다스리기까지 하였다. 여성들은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열의 구현을 위하여 소중한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도 하였으며, 죽는 순간의 유언으로도 죽음의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명의 풍몽룡의 『三言·蔡瑞虹忍辱報仇』은 제목 그대로 채서홍(蔡瑞虹)이라는 여인이 긴 세월동안 능욕과 수모를 참고 견디다 결국 부모의 원수를 갚는 내용이다. 채서홍의 가족들은 아버지를 따라 부임지로 가다가 도적들에게 모두 살해된다. 자신은 강간당하고 목이 졸려 버려지지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남는다. 깨끗한 죽음이 아닌 치욕적인 삶으로 복수를 선택한 채서홍은 사창가에 팔려지는 등으로 여러 남자를 전전하는 수모의 시간을 겪는다. 다행히 주원의 도움으로 그와 함께 원수들을 모두 체포하여 사형판결을 받게 함으로 어렵게 부모의 원수를 대신 갚지만 채서홍은 주원에게 유서를 남기고 결국 자결하고 만다.

> "남자의 덕은 의리에 있고, 여자의 덕은 정절에 있나이다. 여자가 정절을 지키지 못하면 짐승과 무엇이 다르겠나이까! … 첩은 원수를 갚고 뜻을 이루었나이다! 어찌 정절을 잃고 살기를 바라며, 가문에 치욕을 남기겠나

www.kci.go.kr

이까, 첩은 곧 죽을 것입니다."[22]

비록 황제가 그녀를 위해 절효방(節孝坊)까지 세워주고, 자식으로서 효의 완성을 위한 어쩔 수 없는 훼절이었지만. 정절을 지키지 못한 것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행위로 인정하고 스스로 죽음으로 처벌하고 있다. 정절을 잃은 여성은 짐승과 다를 바 없어서, 죽어야 마땅하다는 당시의 가치관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남장을 하고 세상을 돌아다니며 부모의 복수를 완성한 행위조차도 양반가 처녀로서 수치로 여겨 자살로 결말을 맺는 이야기가 있다.

조선 후기 安錫儆의 문집『雪橋漫錄』에 수록된『劍女』의 아가씨도 멸문지화에서 가까스로 살아남는다. 아가씨와 여종은 남장(男裝)을 하고, 자신들의 복수를 도와 줄 고수를 찾아 무공을 익힌 후, 어렵게 원수를 찾아내어 드디어 부모의 복수를 완성한다. 그러나 아가씨는 여종에게 유언을 남기고, 자결하고 만다.

"더구나 남장(男裝)으로 8년 동안 천 리를 돌아다녔으니, 몸을 더럽히지는 않았지만 어찌 처녀의 도리라고 하겠느냐. 시집을 가고 싶어도 필시 갈 곳이 없을 터이고, 시집간들 마음에 맞는 장부를 만날 수 있겠느냐. … 나는 여기에서 스스로 목을 베어 죽으련다." [23]

아가씨의 효심은 인정받고 칭송받았지만, 결국 또 다른 봉건적 가치관인 '열' 의 기준으로 자신을 정죄하는 슬픈 고백의 유언을 남긴다.

조선 후기 이시선의『열녀홍씨전』의 과부 홍씨도 시아버지의 첩과 시동생 내외가 집안의 재산에 욕심을 내고 자신의 정절을 모함하자. 추관 앞에서 옷을 벗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고 자결한다.

22) "男德在義, 女德在節. 女而不節, 行禽何別! … 妾之仇已雪而志以遂矣! 失節貪生, 貽玷閥閱, 妾且就死。."(馮夢龍,『醒世恒言』, 三秦出版社, 1993)

23) "吾非吾親之男子, 雖生存於世, 終非嗣續之重, 而男裝八歲, 方行千里, 縱不汚身於人, 寧爲處子之道乎? 欲嫁必無所售 使得售 何得稱意之丈夫哉? … 吾卽自刎而伏於此。"(이우성 외(편역), 『이조 한문 단편집 劍女』, 1996)

www.kci.go.kr

> "이것은 여러 악인들이 쇠도 녹이는 입으로 시아버님의 마음을 속이고 그르쳐 망극한 말을 하여 저의 몸을 욕되게 하니 누명을 벗고 죽어 황천에서 불결한 귀신 됨을 면하기를 바라나이다."[24]

이처럼 여성들이 죽음으로 '열'을 구현하고, 그렇지 못한 자신을 정죄하여 죽음으로 처벌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녀들의 강렬한 열의 구현이라는 의지는 유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었다.

3) 모성(母性)의 실천

모성(母性)보다 더 강렬한 감정이 있을까? 특히 어린 자식을 두고 죽음에 임하는 여성의 안타까운 마음은 이루 말 할 수 없다. 이 순간 여성들은 자신의 질투, 미움, 원망 등의 본연의 감정은 일체 접고, 오로지 내 자식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대상에게 자식의 안위, 미래를 부탁하는 유언을 남기곤 하였다. 청초 포송령의 지괴문언소설『聊斋志异·吕無病』의 손기의 부인 허씨는 '질투하진 않는' 현숙한 아내로, 남편이 아끼는 하녀 무병(無病)과도 사이좋게 지낸다. 그리고 평소 무병이 자신의 어린 아들 아견(阿堅)을 자신의 친자식처럼 대하는 걸 알고는 임종 시 아견이 무병을 친 엄마로 알게 해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다. 남편의 사랑을 뺏은 다른 여성에게 질투와 원망의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자식의 친엄마로 대해 달라는 허씨의 부탁은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여성본연의 감정보다는 오로지 자식의 안위만을 생각했던 허씨의 지극한 모성을 보여주고 있다.

> "무병(無病)이 제 아들을 아주 많이 아끼니, 아이에게는 무병(無病)이 친 엄마라고 해 주세요."[25]

---

24) "此則群姦鑠金之口 詿誤舅心 爲言罔極 扞衊妾身 玆願一瞑而死 免作泉下不潔之鬼。" (이혜순, 『한국의 열녀전』, 월인, 2002)

25) "无病最愛儿, 卽令子之可也, 卽正位焉亦可也。" (김혜경역, 『요재지이』, 민음사 2002)

www.kci.go.kr

무병은 허씨의 유언을 극구 사양하지만, 후에 손기의 후처 왕씨가 아견을 학대하자 아견을 자신의 친자식처럼 돌보며 지킨다. 자신을 질투하지 않고, 잘 대해 준 본부인 허씨에 대한 보답과 의리로 그의 아들 아견을 생명을 걸고 지켜낸 것이다.

한편 일본 고전문학의 최고봉인 헤이안시대의『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의 로쿠조미야슨도코로(六条御息所)는 일본고전문학사에서 질투의 화신으로 일컬어진다. 전동궁비 출신의 미모와 기품을 갖춘 미망인인 자신에게 겐지가 구애하자,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겐지가 자신에게 시들해지자, 원망과 고뇌로 생령(生靈)이 되어 겐지의 여성들을 무차별로 공격한다. 겐지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고 육체의 질병도 치료하기 위하여 재궁(齋宮)이 된 딸과 함께 이세(伊勢)로 내려가지만 결국 치유되지 못한다. 그러한 그녀도 자신의 죽음이 임박하자 문병을 온 겐지에게 딸의 후견을 부탁한다. 더불어 자신의 딸을 겐지의 여성 중 한 명으로 생각하지 말고 정성스럽게 돌보아 달라고 신신당부한다.

> “딸에게 일이 있을 때 꼭 돌보아 주시길 바랍니다. 아직 부모를 대신할 사람도 없어서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 그러나 딸에게 절대로 연애의 감정은 갖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26)

이에 겐지는 ‘유언을 듣는 사람에 넣어 주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그녀의 딸을 기꺼이 자신의 양녀로 삼는다. 후에 자신의 아들의 후궁으로 입궐시킴으로 그녀의 유언을 지킨다. 로쿠조미야슨도코로는 죽고 난 후에도 여전히 겐지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령(死靈)이 되어 겐지 주변의 여성들을 출가시키거나 죽이는 등으로 지속적으로 괴롭히지만, 자신의 유언대로 딸을 돌보아 준 것에는 감사의 인사를 잊지 않았다. 산채로 원령이 될 정도의 집착과 고통을 안겨 준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겐지였지만, 딸의 장래를 위해서는

26) “かならず、ことに触れて數まへきこえたまへ。また見ゆづる人もなく、たぐひなき御ありさまになむ。… かけてさやうの世づいたる筋に思し寄るな。”(『源氏物語澪標』)

www.kci.go.kr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그에게 부탁할 수 밖에 없었고, 그렇지만 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처럼 사랑으로 상처받지 않도록 단호하게 부탁하는 애틋한 모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장의 여성들은 대부분 효, 열, 모성의 미덕을 실천한 '현모양처' 유형의 여성들로 그녀들의 유언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결말을 가져왔다. 다만 《红楼梦》의 진가경(秦可卿)의 경우, 며느리로서 집안을 걱정하고 당부하는 갸륵한 유언을 남김에도 불구하고 가부(賈府)는 몰락해 버린다. 결국 그녀의 시아버지와의 불륜이라는 도덕적 해이는 자신의 요절뿐만 아니라 집 안의 불행에도 크게 영향을 준 것이다. 이것은 당시 여성이 어떤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부정(不貞)' 이라는 죄명은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정죄되어야 한다는 봉건사회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함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예로 볼 수 있다.

4. 여성의 사회적·이념적 차원의 유언

1) 정의(正義)의 실현

고대 한중일 사회에서는 악인은 반드시 처단되어야 하고, 그 죄과는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한다는 '인과응보(因果應報)'사상이 문학 작품 속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여성들이 유언으로 악인을 알려 주어 처벌을 받게 하거나 혹은 악을 방관하는 사회를 고발하여 결과적으로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작품들이 있었다.

원잡극 관한경의『竇娥冤』속 가난한 서생의 딸 두아(竇娥)는 어머니가 죽고 난 후, 아버지에 의해 과부 채노파네집의 민며느리로 들어간다. 두아의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시어머니와 서로 의지하며 지낸다. 그러다가 건달 장노아부자가 채노파의 생명을 구해준 대가로 자신들과 결혼하기를 강요하나 두아에게 거절당한다. 장노아는 채노파를 살해할 계략을 꾸미나 실수로 자신의 아

www.kci.go.kr

버지를 죽이게 되자, 뇌물로 관리를 매수하여 두아에게 살인죄를 씌운다. 두아는 결국 사형을 선고받고, 무너져버린 사회질서와 마을 사람들의 양심과 정의에 대한 방관에 절망하며 저주의 유언을 남긴다.

> “만약 저 두아가 정말로 억울하다면, 칼이 지나고 목이 떨어질 때 한 줄기 더운 피가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날아가 흰 비단을 적실 것입니다. 대인, 지금은 삼복더위지만, 만약 두아가 정말로 억울하다면, 죽고 난 후에 하늘에서 세 척되는 눈이 내려 두아의 시체를 덮을 것입니다. 대인, 저 두아의 죽음은 정말로 억울합니다. 이제부터 이 초주에 삼년동안 큰 가뭄이 닥칠 것입니다.”27)

위의 세 가지 서원으로 이루어진 유언은 곧 바로 현실로 이루어짐으로 두아의 결백이 증명된다. 그리고 그녀의 원혼은 관리가 되어서 초주를 찾아 온 친아버지 두천장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한다. 결국 두아는 ‘살인죄’의 억울한 누명을 벗고, 장노아는 처형됨으로 정의가 구현된다.

또한 요부들의 욕망이 난무했던 명의『金甁梅』속에는 다양한 여성들이 등장한다. 반금련(潘金蓮), 춘매(春梅)처럼 시종일관 음행(淫行)으로 악행을 저질러 시동생의 손에 참수되거나 팔려가는 처참한 결말을 맺기도 하지만, 반면 정숙한 본처 오월랑(吳月娘)은 비교적 평온한 결말을 맺기도 하였다. 그리고 시작은 욕망을 추구하며 악행을 저질렀지만, 아들의 죽음, 양심의 가책, 질병 등으로 일부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는 여성도 있었다. 6번째 부인이며, 작품명『金甁梅』의 ‘甁’에 해당하는 이병아(李甁兒)이다. 이병아는 남편 화자허(花子許)를 홀대하여 죽게 만들고, 재혼한 장죽산(張竹山)도 남자로서 참을 수 없는 무안과 멸시를 주어 내쫓아 버리고는 바람둥이 서문경(西文慶)의 첩으로 들어간다. 서문경의 사랑을 받고, 아들 관가(官哥)를 낳고는 고약하던 성품이

27) “若是我竇娥委實冤枉, 刀過處頭落, 一腔熱血休半點兒沾在地下, 都飛在白練上者。大人, 如今是三伏天道, 若竇娥委實冤枉, 身死之后, 天降三尺瑞雪, 遮掩了竇娥屍首。大人, 我竇娥死的委實冤枉, 從今以后, 着這楚州亢旱三年。”(王國維 著· 권용호 註譯, 『宋元戲曲史』, 학고방, 2001)

www.kci.go.kr

다소 유순해진다. 이에 질투와 시기심을 느낀 반금련의 계략에 의해 아들 관가가 죽게 된다. 또한 전남편 화자허가 자신을 책망하고, 심지어 자신의 아들까지 안고 나타나 위협하는 악몽까지 꾸게 되면서 이병아는 서서히 죽어간다. 아들 관가의 죽음이 반금련의 계략이었음을 알고서도 달리 말이 없다가, 자신의 임종을 지켜보고자 찾아 온 본처 오월랑에게는 반금련에 의한 '암살'이라는 유언을 남김으로 복수를 한다.

> "후에 아이를 낳으시면 잘 기르시어 영감의 대를 잇도록 하세요, 또한 저와 같이 주의를 않고 남의 암살을 당하지 않도록 하세요."28)

결국 그녀의 유언이 계기가 되어 본처 오월랑은 서문경이 죽고 난 후, 반금련을 가차없이 팔아 버린다. 아들이 죽는 크나큰 슬픔을 내색없이 참아 내다가. 죽음 앞에서는 가장 솔직한 심정으로 반금련의 악행을 공개하여, 반금련에게 복수를 한 것이다. 결국 쫓겨난 반금련은 시동생 무송(武松)에게 참수되어 자신이 독살한 전남편 무대랑(武大郎)의 영전에 바쳐지는 처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

2) 예법(禮法)의 재구축

죽음의 순간처럼 진솔하고 장엄한 경험이 있을까? 문학 작품 속 일부여성들은 삶의 마지막 순간인 죽음 직전에, 살아온 시간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이야기하기도 하며, 때로는 억눌려왔던 자신의 진심을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그러한 유언은 당사자에게도 큰 의미를 가지지만 듣는 사람에게도 그 사람이 살아온 방향을 송두리째 바꿀 만큼 강력한 힘과 능력을 발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유언들은 한평생 가부장적 봉건사회에서 살아오면서, 자신의 삶 전체

28) "與他爹做個根蒂兒, 休要似奴心糟, 吃人暗算了！" (笑笑生, 『金甁梅詞話』 上下, 人民文學出版社, 2000)

www.kci.go.kr

를 관조하며 얻은 깨달음과 자신이 이루지 못한 이상들을 유언으로 당부, 권고하여 기존의 예법을 재구축하고자 하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조선 후기 安錫儆의 문집『雪橋漫錄』에 수록된「劍女」의 아가씨는 오랜 시간의 치밀한 준비를 통해서 결국 부모의 복수를 완성한다. 그러나 아가씨는 '남장(男裝)'과 '떠돌아 아닌 것'을 양반가 여성의 도리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여 자결하고 만다. 그러나 자신의 여종에게는 자신과는 다른 삶을 살며 또한 배우자를 주체적으로 선택하라는 유언을 남긴다.

> "나라 안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걸출한 선비를 골라 처나 첩이 되거라. 너 역시 범상치 않은 기개와 걸출한 기상이 있으니, 어찌 평범한 남자에게 만족하며 고개를 숙이겠느냐?" 29)

아가씨 자신은 양반가 여성의 '열'의 기준으로 자신을 정죄하여 자살을 하지만. 여종에게는 '평범한 남자에 만족하지 않고', 스스로 좋은 배우자를 찾아가라는 뜻밖의 유언을 남긴다. 여종은 주인 아가씨의 유언을 받들어 소응천의 명성을 듣고는 그를 찾아간다. 그러나 그녀가 '奇士'라고 생각하고 기대했던 소응천이 실은 그녀의 기대에 못 미치는 '평범한 남자'임을 알게 되자 한 치의 미련도 없이 그를 떠난다.

> "장차 절경의 바다와 빈산에서 노닐 것입니다. 남장은 아직 남아 있으니 표연히 다시 갈아입고 노닐 것입니다. 어찌 다시 여자가 되어 고개를 숙여 음식을 장만하고 바느질을 하는 일에 손을 얽매어 지내겠습니까."30)

여종은 다시 남장(男裝)을 하고 '여자가 되어 고개를 숙이는' 삶이 아닌 '바다와 빈산에서 노니는'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 떠난다.

---

29) "必廣遊國中, 而審擇奇士, 爲之妻妾也. 汝亦有奇志傑氣, 豈其甘心低眉於凡子者乎? " (이우성 외(편역), 『이조 한문 단편집 劍女』, 1996.)

30) "將遊於絶海空山矣.男裝尙在, 飄然更着而遊, 寧復爲女子, 低眉斂手於飮食縫紉之事乎。" (이우성 외(편역), 『이조한문단편집 劍女』, 일조각, 1996)

www.kci.go.kr

한편 일부 문학 작품 속에는 유언을 통하여 타인에게 깨달음을 주는 여성들이 있었다. 이러한 여성들은 현실에서 고통 받는 중생의 동반자요, 구세주 같은 존재이기도 하였다.[31] 조선시대 김시습의『金鰲新話·萬福寺樗蒲記』은 양생(梁生)과 하씨녀의 생사를 초월한 사랑이야기다. 하씨녀는 왜구들의 난리에도 정절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불사했으며, 진정한 사랑을 이루고자 귀신으로 환신한 적극적인 여인이었다. 그녀의 마지막 당부도 기존의 입신양명을 꿈꾸던 양생(梁生)의 인생관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다. 비록 하씨녀가 인간이 아닌 귀신의 모습으로 남긴 마지막 말이었지만, 남자 주인공의 인생관을 바꾸는 내용으로 유언의 범주에 넣고자 한다.

> "당신의 은덕으로 저는 이미 다른 나라의 남자의 몸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유명(幽明)의 한계는 더욱더 멀어졌사오나, 당신의 두터운 은정에 깊이 감사를 드리옵니다. 당신은 다시 길을 깨끗이 닦아 저와 같이 속세의 누를 초탈하시옵소서."[32]

이 후 양생은 그녀의 유언대로 같이 '속세의 누를 초탈하고자' 지리산으로 들어가 소식을 끊는다.

위의 여성들은 봉건적 가부장제 사회에서 '현모양처' 라는 틀에 갇혀 감히 소리 내지 못했던 자신들의 깨달음과 추구하는 이상들을 생의 마지막 말, 유언을 통해 가감 없이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유언들은 듣는 이들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통째로 바꾸어 놓기도 하였다. 이러한 유언의 대상은 한 개인이라기보다는 당시 봉건사회 전체를 향한 것이었다. 이것은 봉건적 가부장사회 아래에서 힘없고 연약한 여성의 목소리를 소중한 생명을 담보로 바꾼 '유언' 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한층 증폭시켜 보다 파급력 있게 전달하고자 한 의도로 볼 수 있다.

---

31) 경일남,「고전소설에 나타난 여승의 인물유형과 문학적 기능」,『어문연구』44, 2004, 227쪽 참조

32) "蒙君薦拔, 已於他國, 爲男子矣. 雖隔幽明, 寔深感佩. 君當復修淨業, 同脫輪回。"(『金鰲新話』)

www.kci.go.kr

5. 나가며

이상으로 한중일 고전문학 속 여성들의 다양한 유언들을 살펴보았다. 여성의 마지막 외침인 '유언'이라는 작은 구멍(eyelet)을 통해 우리는 한중일 고대사회의 모순과 왜곡의 참된 모습을 보게 되며, 그걸 극복하는 여성 특유의 해결책을 볼 수 있었다.

우선 삼국의 고전문학 속 여성들의 유언에서는 아래와 같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유언의 다양성이다. 사랑의 맹세와 단절이라는 개인적·정념적인 유언에서부터, 효, 열, 모성의 가치를 추구하였던 가정적·윤리적 유언, 또한 사회정의를 실현하며, 기존의 예법을 재구축하고자 하였던 사회적·이념적 유언으로까지 그 유형이 지극히 다양하였다. 또한 당시의 가부장적 봉건사회의 가치관들을 옹호하는 다소 수동적인 유언들도 있지만, 자신의 소리를 내며 적극적인 변화를 추구하여 자신과 주변을 변화시키는 적극적인 유언도 있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삼국의 역사적,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삼국 여성들의 유언에는 적지 않은 차이점도 존재하고 있었다.

먼저, 중국여성들의 유언은 보다 적극적이며, 특히 애증(愛憎)의 표현에 있어서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중국 여성특유의 강인함과 특히 명 후기에 싹트기 시작한 사회전반적인 반전통, 반봉건의 움직임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일본 여성들은 일본 특유의 미의식 즉 죽음에 대한 미학으로 연결되어 유언에 있어서도 탐미적인 면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것은 한중일 삼국 중 불교의 영향을 가장 깊게 받았고, 또한 무사도, 할복 등으로 인한 죽음과 다소 친밀한 사회적 분위기와도 관련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독특한 정신세계는 '신주(心中)'를 소재로 하는 작품들 속의 유언에서 특히 두드러지고 있다.

한편 한국 여성들의 유언은 중국과 일본에 비해 보다 전통적인 유교 교리

www.kci.go.kr

에 갇혀 보다 정형화된 윤리·도덕적인 유언들이 많았다. 이것은 유교가 중국에서 발원하였지만, 조선사회에서 더욱 발전되고 꽃 피운 결과이다. 또한 가부장제도의 구축을 위한 이데올로기적인 순응을 여성들에게 내면화시킨 결과물이며, 이로 인하여 여성들은 삶의 마지막 언어, 유언을 통해서까지 재차 봉건윤리를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다.

죽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했던 '유언', 여성들은 자신의 소중한 생명과 맞바꾼 유언으로 마지막까지 가부장 봉건제도를 묵묵히 옹호하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온 몸으로 저항하기도 하였다. 여성의 유언은 단지 '말'과 '글'에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의 유언을 자신의 전존재(全存在)를 통해 표현했다. 때로는 피로, 때로는 통곡과 몸부림으로, 자신들의 작고 연약한 목소리를 봉건체제의 모든 구성원들이 들을 수 있도록 있는 힘껏 외쳤다. 그러기에 고대 한중일 문학작품 속 여성들의 유언(遺言)은 여성들의 한(恨)이 담긴 마지막 넋두리가 아니라, 그 시대를 향한 새로운 개선명령(改善命令)이었고, 그 사회에 보내는 최후통첩(最後通牒)이었음이 분명하다.

www.kci.go.kr

参考文獻

경일남, 「고전소설에 나타난 여승의 인물유형과 문학적 기능」, 『어문연구』 44집, 2004.
기군상 지음, 정유선 옮김, 『趙氏孤兒』,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1.
김난주, 「정사, 사랑과 죽음의 환상」, 『에로티시즘으로 읽는 일본문화』, 제이엔씨, 2013.
김종군(편역), 『중국전기소설선』, 박이정, 2005.
김지수, 「심청전의 주제의식과 근원설화에 대한 관조」, 『종교문화학보』 10, 2013.
김혜경역, 『요재지이』, 민음사, 2002.
도미영, 『운영전에 나타난 죽음의 양상과 의미연구』,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민병훈 옮김, 『이세모노가타리』,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4.
박미림, 『소네자키 신쥬에 나타난 근세 일본인의 사생관』,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박희병 편역, 『심생전』, 돌배게, 2007.
왕국유, 『宋元戲曲史』, 학고방, 2001.
이우성 외(편역), 『이조 한문 단편집 劍女』, 1996.
이혜순, 『한국의 열녀전』, 월인, 2002.
정하영, 『고전문학전집 13 심청전》, 고대민족문화연구소, 2005.
조설근, 최용철역, 『홍루몽』, 나남, 2009.
풍몽룡, 『삼언』, 최병규역, 창해, 2002.
한혜경, 「왕희봉의 성격특성과 문화적 의의」, 『중어중문학』 20, 1997.

曹雪芹·高鶚,, 『紅樓夢』 上下, 人民文學出版社, 1996.
馮夢龍 編著, 『三言』, 三秦出版社, 1993.
浦松齡, 張友鶴校, 『聊齋志異』, 上海古籍出版社, 1978.

www.kci.go.kr

釋子山 夾注, 『夾注名賢十招詩』, 上海古籍出版社, 2005.
笑笑生, 『金瓶梅詞話』 上下, 人民文學出版社, 2000.

森修 · 鳥越文蔵 外『近松門左衛門集』, 小学館、1979.
阿部秋生校注,『源氏物語』, 小学館、1998.
福井貞助 校注·譯, 『伊勢物語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12, 小学館, 2004.

www.kci.go.kr

Abstract

Woman's Will in Ancient East Asian Literature

Lee, Kyung mi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re-light the views of women who were suppressed in the patriarchal society at that timeby analyzing 'women's will' by type in ancient Korean, Chinese and Japanese literature. I divided the will of women into three types. First, in a 'personal andemotional will,' a woman wished through her will for the despair and separation of love, the oath of love and the its continuation to the future. The second is 'domestic and ethical will,' in which women seek to complete filial piety, implement enthusiasmand practice motherhood through wills. Third, as a 'social and ideological will,' a case in which a woman sought to realize justice through a will and rebuild social norms. Through this study, women ironically defended patriarchal feudalism until the last moment of life through their life-like wills, sometimes through wailing and struggle, and resisted with the whole body so that all members could hear through their weak, small voices. Afterall, the woman's will was the last self-realization of a woman, and at the same time the last cry of women who had lived their lives in inflection under the oppression of feudalism. And women's wills should not be understood just on a personal level, but onthe last challenge to the family and society, and even the social system and ideology that they had struggled with.

Key words : Woman, Will, East Asia, Ancient Literature, Comparative Literature

투 고 일 : 2020. 4. 10. / 심 사 일 : 2020. 4. 15.~ 2020. 5. 15. / 게재확정일 : 2020. 5. 20.

www.kci.go.kr